

스위스 가구패널(SHP)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wiss Household Panel and its Implications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2006년부터 시작된 한국복지패널(KOWEPS)은 1차 패널조사 당시 조사가 완료된 원표본 가구가 7,072가구였으며, 2011년 6차 패널조사 완료 시점까지 여전히 원표본 가구의 규모가 5,000가구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원표본 유지율 약 75% 수준으로 국내외 여타 패널조사에 비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표본 가구의 감소, 특히 저소득가구의 표본 탈락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표본의 추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2년 7차 패널조사 완료 후 신규 패널가구 추가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비조사 등을 거쳐 1,8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신규 패널가구의 표본추출은,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1차 원표본과 유사한 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7차 패널조사가 완료된 원표본 5,271가구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1,800가

구의 신규 표본을 통합한 전체 원표본 가구 규모는 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당시 최초 원표본 가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신규 표본 추가 사례는 국내외 패널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가구패널(Swiss Household Panel, SHP)의 경우, 1999년부터 원표본(SHP_1)을 중심으로 패널데이터 구축을 시작한 이래 6차 웨이브에 해당하는 2004년에 신규 표본가구(SHP_2)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와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HP는 모듈(module) 방식에 의한 설문구성 등 조사내용 개선, 가중치의 조정, 신규 표본(SHP_3) 추가, 조사방식 개선, 국가 간 패널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SHP 발전과정, SHP의 표

본가구 및 가구원 변화 추이, SHP의 조사방식 및 최근 조사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SHP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복지패널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¹⁾.

2. 스위스 가구패널(SHP) 개요

1) SHP 발전과정

SHP(Swiss Household Panel)는 199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PSID(1968), 독일 GSOEP(1984), 영국 BHPS(1991), 캐나다 SLID(1993) 등 주요 국가에서 구축되고 있는 대표적 패널조사에 비해, 호주 HILDA(2001), 우리나라의 한국노동패널(KLIPS, 1998)과 유사한 시점에 시작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SHP는, 스위스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스위스 국민의 생활여건과 관련된 역동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SHP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스위스의 유일한 패널조사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1년을 주기로 매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5년간의 역사를 지닌 SHP의 발전과정은 세 단계(1998~2003 / 2004~2007 / 2008~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1998~2003)는 SHP의 구축이 시작된 시기로, 같은 기간 중에 있었던 'Switzerland Towards the Future' 프로그

램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SHP는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스위스 연방 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과 뇌샤텔 대학교(University of Neuchatel)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SHP는 초기에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스위스 연방 통계청이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여 스위스 국민들의 생활여건 및 삶의 질 상태와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스위스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함으로써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스위스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2004~2007)에는 SHP 표본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1999년 구축된 SHP 표본(SHP_1) 감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 표본(SHP_2)을 추가하였다. 또한, 스위스 연방 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SLIC(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2008~현재)는 뇌샤텔 대학교(University of Neuchatel)에서 스위스 사회과학센터인 FORS로 SHP의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는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재정지원을 기초로, 로잔 대학교(University of Lausanne)에 위치한 FORS(Swiss

1) 이 글은 한국복지패널(KOWEPS) 신규 패널표본 추가와 관련된 국외출장(2013.7.3.~12) 중에 방문한 스위스 사회과학센터(FORS)에서 SHP 담당자들과의 발표·토론 과정에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foundation for research in social sciences)에서 담당하고 있다.

2) SHP 표본가구 및 가구원 변화 추이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패널 표본을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배경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독일 통일(GSOEP 동독 지역 표본 추가), EU 통합(신규 회원국 표본 추가), 미국의 이민 증가(PSID 이민가구 표본 추가)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반영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잉글랜드 중심이었던 영국 BHPS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 표본 추가)하기 위해 신규 표본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패널조사 진행에 따라 조사거부, 사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표본탈락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인종이나 가구유형을 대상으로 해당 특성을 지닌 가구를 표본으로 추가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신규 표본을 추가²⁾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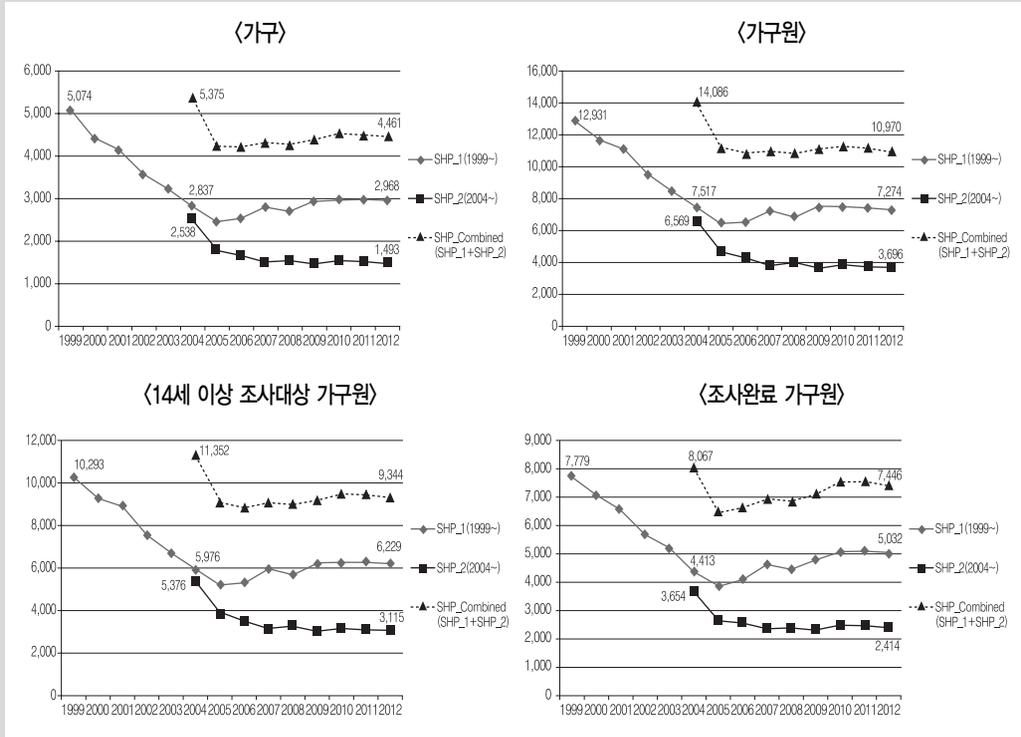
SHP의 표본은 스위스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 의해 추출된 것으로, SHP_1과 SHP_2로 구성된다. 1999년 시작된 SHP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널조사 초기 발생한 원

표본 가구의 높은 탈락률(attrition rate)로 인해 원표본 유지율이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6차 웨이브인 2004년에 약 2,500가구의 신규 표본(SHP_2)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SHP 원표본(SHP_1) 가구 및 가구원 변화 추이(1999~2012)와 신규 표본(SHP_2) 및 신규 가구 통합 표본(SHP_Combined)의 표본가구 및 가구원의 변화 추이(2004~2012)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999년 처음으로 조사된 원표본(SHP_1)은 5,074가구, 가구원 12,9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4세 이상 조사대상 가구원은 10,293명,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7,799명이었다. 이와 같은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의 규모는 1~5차 웨이브 기간 중 빠르게 감소하여 신규 표본을 추가 조사한 시점인 2004년(6차 웨이브)의 경우, 원표본은 2,837가구, 7,517명으로 6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2,538가구 6,569명을 SHP 신규 표본(SHP_2)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14세 이상 조사대상 가구원은 5,376명, 조사 완료된 가구원은 3,654명이었다. 원표본과 신규 표본을 통합한 전체 SHP 표본(SHP_Combined)은 2004년에 5,375가구, 가구원 14,086명이었으며, 이 중에 14세 이상 조사대상 가구원은 11,352명,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은 8,067명이었다. 그러나, 신규 표본(SHP_2)의 경우 2차 웨이브인 2005년에 또 다시 큰 폭으로 표본 탈락이 발생하였으며, 2006~2007년까지 다소 완만한 상태로 표본 감소가 계속되었으나 2008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2년에

2) 2012년 7차 웨이브에서 1,800가구의 신규 표본을 추가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신규 표본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SHP 신규 표본 추가에 따른 패널가구 및 가구원 변화 추이(1999~2012)



자료: Robin Tillmann(2013). Swiss Household Panel: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FORS. 재구성

는 1,493가구 3,696명이 표본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화는, 2006년부터 표본가구 조사의 기본원칙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신규 표본 추가와 더불어, 2006년부터 표본탈락률을 개선하고 표본유지율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기존에 최종적인 조사거부로 판정된 가구 및 가구원의 경우에도 매년 조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원표본(SHP_1)의 경우 2004년 2,837가구, 7,517명에서 2012년에 2,968가구, 7,274명으로 표본유지 가구의 규모가 2004년보다 오히려 다소 증가하

였다. 이에 따라, 2004년 신규 표본을 통합한 전체 표본(SHP_Combined)의 규모 역시 2005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4,461가구, 전체 가구원 10,970명, 14세 이상 중 조사완료 가구원 7,44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SHP 조사방식 및 최근 조사현황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은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방식(CAI, Computer-Assisted Interviewing)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복지패널(KOWEPS)의 경우도 5차 웨이브인 2010년부터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SHP의 경우도 역시 컴퓨터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SHP에서는 미국 PSID(1994), 캐나다 SLID(2001)와 같이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 영국 BHPS(1999), 독일 GSOEP(1998) 등 유럽국가의 가구패널 조사와 상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SHP는 특히 2010년부터 조사거부 가구의 경우 조사완료 가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와 CAWI(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ing) 시스템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SHP는 CATI와 CAPI 방식의 비교를 위한 시범 사업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SHP는 스위스 국민들의 인적 구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사실(소득, 재산,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활동참가, 사회참여 등)과 주관적 인식(만족도, 가치, 평가 등)을 포함하여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큰 폭으로 나타난 표본 탈락 및 2004년 신규 표본 추가 직후 2005년에 발생한 표본 탈락 등 표본 탈락률을 개선하고 표본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매년 패널가구 조사의 기본원칙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과거에 조사를 거부하여 탈락한 것으로 판정된 가구 및 가구원의 경우에도 복원 조사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패널가구를 추적하기 위한 주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2011년부터 패널가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뉴스레터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패널가구의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패널가구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패널 유지에 따른 무조건적인 인센티브와 조사완료에 대한 조건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SHP 표본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조사원 선발 및 교육훈련, 조사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조사원 배정 및 집합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방식에 있어 혼합모드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조사거부 가구에 대한 조사참여 유도를 위하여 CATI 방식을 보완하여 CAPI와 CAWI 조사방식을 2010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이외는 별도로 매년 표본 탈락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표본 탈락 및 무응답 등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조사가 완료된 2012년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SHP_1과 SHP_2 표본에 대해 각각 13차와 8차 웨이브에 해당하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2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현장조사, 데이터클리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동시에 2012년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2013년 수행될 14차와 9

차 웨이브 현장조사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순환 주기에 따른 부가조사에 대한 예비조사, 패널 가구 사전 연락,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부터 향후 신규 표본 추가와 관련하여 SHP_3에 대한 시범사업 연구(pilot study)가 시작되어 2013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에서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의 생애사 관련 설문내용, 패널가구 접촉 및 자료수집 과정의 다양한 조사방법의 결합(혼합모드)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었다.

2004년에 추가된 신규 표본(SHP_2)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SHP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핵심적 내용은 모듈(module) 방식에 의한 설문구성 등 조사내용과 조사문항의 개선,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 여타 조사와의 협업, 신규 표본(SHP_3) 추가이며, 추진계획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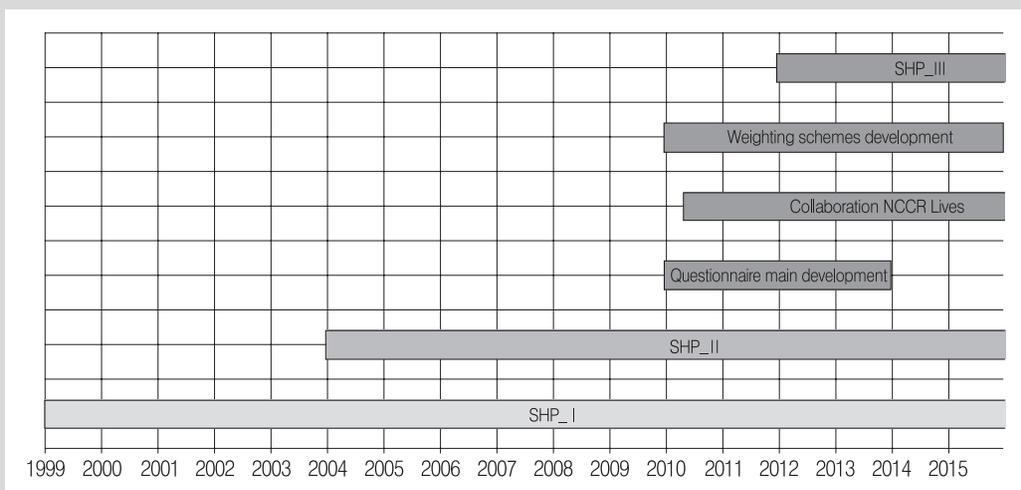
3. 스위스 가구패널(SHP)의 중장기 발전전략

SHP는 1999년에 시작된 원표본(SHP_1)과

1) 모듈(module) 방식에 의한 설문구성 등 조사문항 체계 개선

SHP는 현재 표본(SHP_1과 SHP_2)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구 및 가구원 조사의 조사문항을 수정하고, 향후 신규 표본(SHP_3) 추가

그림 2. SHP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계획



자료: FORS(2010), Work Programme 2012~2016, p.17.

와 연계하여 새로운 조사문항을 설계하는 등 설문구성 과 조사문항 체계의 개선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SHP는 2005~2006년에 IPE(International Peer Evaluation)의 평가대상이 되었는데 IPE에서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몇 가지 영역의 조사문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그리고 정치적 가치 등은 매년 조사하지 않을지라도 정보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HP는 2010년부터 3가지 유형의 모듈(Module) 방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조사영역과 조사문항의 체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러한 3가지 유형의 모듈은 Unique Modules, Core Modules, Rotating Modules로 구분되며, 각각에 해당하는 조사영역은 <표 1>과 같다.

이상의 3가지 유형 가운데 Rotating Modules에 해당하는 조사영역들은 각각 3년을 주기로 반복 조사되며, SHP가 계획하고 있는 각 조사영역별 순환 방식에 의한 조사문항 체계 개선 및 조사일정은 <표 2>와 같다. 각각의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영역별 조사문항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1999년 원표본(SHP_1), 2004년 신규 표본(SHP_2), 추가 신규 표본(SHP_3) 모두 이러한 조사문항 체계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SHP의 새로운 조사문항 체계 개선

표 1. Module 방식에 의한 SHP 조사영역별 분류체계

Topics	Unique	Core	Rotating modules
Identific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X	
Life events		X	
Health		X	
Education		X	
Current job		X	
Last job	X		
Activities calendar		X	
Income		X	
Social network			X
Social origin	X		
Religion			X
Social participation			X
Politics			X
Leisure			X
Psychological Scales	X		X

자료: FORS(2010). Work Programme 2012~2016, p.14.

표 2. Rotating Modules의 조사영역별 조사문항 체계 개선 및 조사일정

Modul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ocial network	X			X			X			X	
Religion			X			X			X		
Social participation		X			X			X			X
Politics		X			X			X			X
Leisure	X			X			X			X	
Psychological Scales			X			X			X		

자료: Robin Tillmann(2013), Swiss Household Panel: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FORS.

은, 주요 국가의 가구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변수들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네트워크인 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NEF는 독일 GSOEP, 영국 BHPS, 미국 PSID, 캐나다 SLID, 호주 HILDA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위스 SHP는 2008년부터 CNEF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P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 체계는 독일 GSOEP, 영국 BHPS, 호주 HILDA의 체계와 일치하며 주요 조사영역에서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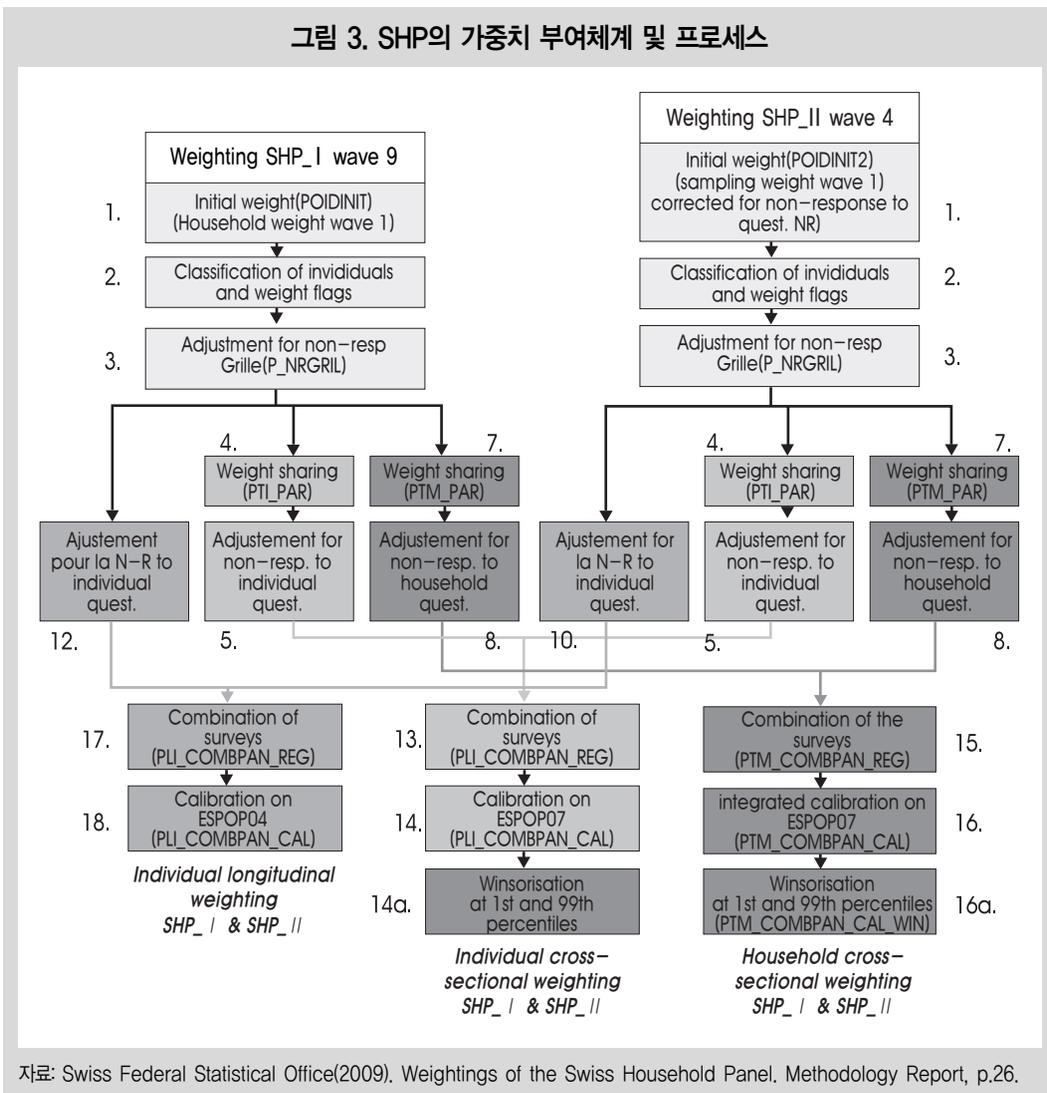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 표본 추가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연구(pilot study)가 진행된 바 있는데, 신규 표본인 SHP_3에 대한 새로운 조사문항 개발과 설문구성에 있어서는 NCCR의 'Overcoming Vulnerability - Life Course Perspectives'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SHP의 중요한 발전전략 중 하나인 국내의 협업 강화와 관련된다.

2)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

주요 국가의 가구패널 조사에서는 모든 웨이브마다 가구와 개인에 대해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SHP가 부여하고 있는 가중치는 개인 종단면, 개인 횡단면, 가구 횡단면 가중치 등 3가지 유형이다. [그림 3]은 2007년에 해당하는 SHP_1의 9차 웨이브와 SHP_2의 4차 웨이브 가중치 부여체계 및 프로세스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현행 SHP의 가중치 부여체계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1999년에 조사가 시작된 원표본(SHP_1)과 2004년 신규 표본(SHP_2)에 대한 1~3단계 작업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가구원 개인을 대상으로 1차 웨이브의 설계 가중값을 부여하고 2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에서 사용되는 분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개인의 기본 가중치 파일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SHP가 조사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설문조사 내용(Grid questionnaire, Household questionnaire, Individual questionnaire) 중에 표본가구의 주소,

그림 3. SHP의 가중치 부여체계 및 프로세스



전화번호, 표본가구 내 가구원 변동과 관련된 조사문항에 대한 무응답보정을 실시하며, 무응답 모형은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의 81개 문항을 활용하여 구축한다. 개인의 횡단면 가중치는 가중값 공유방법(4단계)을 거쳐 개인의 무응답을 조정(5단계)한 후 SHP_1과 SHP_2를 결합한

상태로 사후보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 역시 개인의 무응답을 조정(12단계)한 후 SHP_1과 SHP_2를 결합하여 사후보정을 거쳐 가중값을 부여한다. 가구의 횡단면 가중치는 가구 가중값 공유방법(7단계)을 거쳐 가구의 무응답을 조정(8단계)한 이후,

SHP_1과 SHP_2를 역시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사후보정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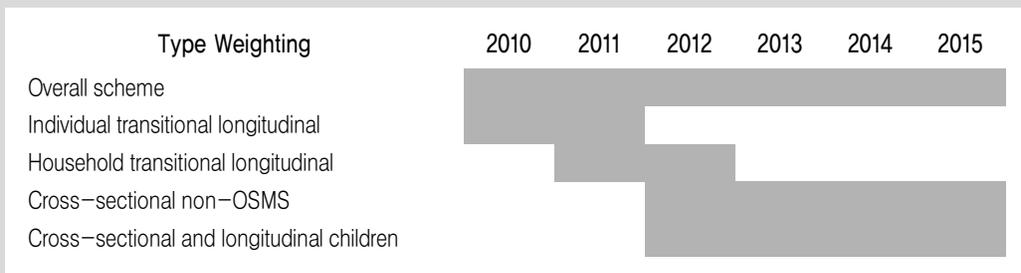
SHP는 중장기 발전전략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SHP 가중치 부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SHP의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영역은 다음의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하는 종단면 가중치 부여방법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개선영역은, 현재 SHP에서 생성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가중치(개인의 횡단면 가중치,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 가구의 횡단면 가중치) 이외에도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에서 생성하고 있는 가구의 종단면 가중치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개선영역은 비표본 가구원(non-OSM, non-Original Sample Member), 즉 1차 웨이브 이후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인해 추가된 배우자, 출생한 자녀, 기타 사유로 전입한 가구원 등 2차 웨이브 이후에 원표본 가구로 포함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구원 조사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 부여이다. 이상

과 같은 SHP의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방향과 세부 과제들은 SH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다양한 분석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스위스 SHP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의 GSOEP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선영역 중 대부분의 과제를 개선하여 가중치 부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

3) 신규 표본(SHP_3) 추가

앞서 SHP 표본가구 및 가구원 변화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HP의 원표본은 1999년 1차 패널조사 이후 표본 탈락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 신규 표본 추가 직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SHP는 IPE의 권고사항에 따라 원표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표본 탈락률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였다. 패널가구를 추적하기 위한 주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뉴스레터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패널가구와 연락을 유지하였으며,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 강화, 조사거부로 탈락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

그림 4. SHP의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영역별 추진계획



자료: FORS(2010), Work Programme 2012~2016, p.15.

방식 변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표본 유지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본가구 및 가구원 감소의 문제는 특히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구, 외국인 등에 대한 종단면 분석에 있어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이러한 집단에 대한 통계적 분석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SHP는 2004년 신규 표본(SHP_2) 추가에 이어 다시 한 번 새로운 표본(SHP_3)을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 연구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는 NCCR과의 협업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새로운 표본의 특성 및 추가에 대한 결정은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와 2010~2011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전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표본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하위 집단(subgroup)의 표본 크기가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표성, 주요 관심변수, 신규 표본 추가 이후 예상되는 표본 탈락률과 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조사거부에 대한 조사참여 유도를 위하여 CATI 방식을 보완하여 CAPI와 CAWI 조사방식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추가 예정인 신규 패널(SHP_3)의 표본 유지 및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혼합모드 전략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4. 시사점

스위스 가구패널(SHP)은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등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witzerland Towards the Future'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로 1998년부터 준비를 거쳐 1999년 1차 웨이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래, SHP는 지난 15년 동안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원표본(SHP_1) 이외에 2004년에 신규 표본가구(SHP_2)를 추가하고, 더 나아가 모듈(module) 방식에 의한 설문구성 등 조사내용 개선,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 신규 표본(SHP_3) 추가, 국가 간 패널조사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7차 패널 당시 1,800가구의 신규 표본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8차 패널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표본을 포함한 전체 원표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4년 상반기 중 이러한 신규 패널가구 통합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예정인 한국복지패널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SHP의 조사방식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이 한국복지패널(KOWEPS)에 제공해주는 시사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SHP의 신규 표본가구 추가, 표본 탈락률을 최소화하고 표본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방식 관련 최근의 변화, 조사문항 체계 및 가중치 부여체계 개선을 위한 SHP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8년간 한국복지패널 구축과정에

서 축적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SHP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표본 유지율 제고와 표본 탈락 감소를 위한 표본 관리체계 및 신규 표본 추가에 대한 기본원칙, 가치치 부여체계 및 데이터 제공 기본원칙, 패널조사원 선발·교육과 추적조사 등 조사수행체계, 조사영역별 조사문항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요 국가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 중인 패널조사표 및 유저가이드의 영문화 작업의 확장을 포함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조사영역별 조사주기 및 조사문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은 1차 조사부터 순환방식을 활용한 부가조사(노인, 장애인, 복지인식)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수행 중인 가구 및 가구원 조사의 조사영역 및 문항들은 국내외 여타 패널조사에 비해 매우 많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2~3시간에 이를 정도로 조사에 응하는 표본가구뿐 아니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많은 조사내용과 그로 인한 장시간의 조사시간은 점점 더 조사가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표본 탈락률을 높여 양질의 패널자료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SHP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 역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뿐만 아니라 조사영역별 순환방식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조사주기를 조정하고, 조사문항을 재구성하는 등 조사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파라데이터(para-data) 구축 및 비표본 오차 분석을 통해 한국복지패널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에 고려되었던 지역별 조사팀 배치, 조사원 및 패널가구 응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도 관련된 것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조사원과 응답자 간 관계형성, 표본가구에 대한 연락 등 접근 방식,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의 태도 및 조사 진행방식 등에 대한 기존 정보들을 확인하고 보다 정교하게 이러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패널 표본가구에 대한 관리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표본 탈락률 감소와 조사 응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차 패널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시스템이 조사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학문적, 정책적 관심과 국가 간 비교연구 확대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패널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2013년 처음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영문화 작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호주 HILDA, 스위스 SHP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저가이드, 코드북, 설문내용 비교 및 표준화 작업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 SHP 역시 외국 패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양질의 패널자료 구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년마다 방법론 워크숍 및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요컨대, 스위스 가구패널(SHP) 변화와 발전 전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국가의 패널조사 역시 표본 관리체계, 가중치 부여체계, 조사영역별 조사문항 체계 및 설문구성, 조사방식 및 조사수행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수요와 사회조사 수행과 관련된 환경 변화 속에 10년의 역사를 채워가고 있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국가 간 비교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패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복지패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